

흥국에프엔비, 푸드테크 기업 '이그니스'에 20억 지분 투자

- ▶ '랩노쉬'로 유명한 간편식·대체식 시장 리딩기업 '이그니스'에 전략적 투자 결정
 - ▶ 상호 협력을 통해 높은 시너지 창출 기대
 -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지속하며 상생 관계 유지할 것

<2018-04-11> 카페 종합 솔루션 기업 흥국에프엔비(189980, 대표이사 박철범)는 대체 식품 제조 및 판매 기업 이그니스와 2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투자 형태는 상환전환우선주(RCPS), 전환사채(CB) 각각 5:5 비율 인수로 진행된다.

지난 2014년 설립된 이그니스는 기능성 간편식·대체식을 만드는 벤처기업으로, 정보기술(IT)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접목해 푸드테크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표 브랜드 '랩노쉬'는 분말과 물을 섞어 마시는 간편식으로 바쁜 현대인들 사이에서 트렌디한 식사로 각광받고 있다.

흥국에프엔비의 이번 지분 투자는 양사 간 상호협력을 통해 신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이다. 단순히 투자 수익만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닌, 흥국에프엔비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적극 제공하고 꾸준히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방침이다.

'랩노쉬'를 비롯한 이그니스의 핵심 제품에 대한 생산 진행을 통해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신제품 개발과 생산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예정으로 이그니스의 자사물을 활용한 신규 유통채널 확보의 긍정적 효과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흥국에프엔비 박철범 대표는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 증가, 건강 및 다이어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증가 추세에 맞춰 국내/외 간편식·대체식 시장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기업들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향후 글로벌 시장 형성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흥국에프엔비는 간편식·대체식 시장 리딩기업 이그니스와의 협업을 발판으로 유망 스타트업과의 상호 협력 확대를 통해 높은 시너지 창출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흥국에프엔비는 이번 지분 투자 외에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 자료문의 [흥국에프엔비] 재경실 김미정 대리 (070-5083-3502)
[IR큐더스] 이진영 책임 (02-6011-2000(138))